

관광객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는 얼마나

전국 최초로 제주서 관광분야 폐기물 발생 실태 파악
공항·항만·호텔 등 업종별 발생량·처리 방법 등 조사
우도에선 페트병·다화용컵 자원순환 프로프램 시범도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는 얼마나 될까.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 주요 관광분야에서 폐기물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아보는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한국환경연구원과 충남대학교에 의뢰해 지난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제주도에 관광분야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와 자원순환 프로그램 개발 영역을 진행하고 있

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영역은 도내 주요 관광분야의 폐기물 발생량과 분리 실태, 처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으로 관광분야 발생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방안, 관광분야의 자원순환 실천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주자치도는 도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40% 이상이 관광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2020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서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등 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제주(1.89kg)였고, 제주의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1.64kg으로 전국 평균(0.89kg)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항, 항만, 관광호텔, 관광지, 관광운수, 관광객 비중이 높은 업종 등 업종별 사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과 처리 방법, 재활용 선별시설이 있는지 여부, 폐기물 종류별 수거체계, 폐기물 감량 또는 자원순환 정책시행 여부 등을 물을 예정 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지역 관광사업체는 모두 947곳으로 관광숙박업 422곳, 관광편의시설업 339곳, 관광객이용시설업 96곳, 유원시설업 81곳, 카지노업 8곳, 국제회의업 1곳이다. 그외 관광객 비중이 높은 업종은 공항·항만, 관광운수렌트카, 전세버스 등 176곳이다.
한편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된다.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우도를 자원순환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오는 8월부터 페트병 수거기를 6대 설치해 페트병 자원순환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 내 카페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다화용컵을 사용하는 캠페인도 진행될 계획이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2022 JDC와 함께
생각을 충추게 하는

NIE

공모전

알림

공모기간 **2022년 10월 23일(일)**
공모대상 도내 초·중·고등학생
공모분야 NIE 학습활동 및 스크랩
(기사활동: 2022년 1월 1일자 신문부터 가능)
형식 활동지(크기 자유) 10매 이상

시상

▶개인 ▷대상 1명(상금 40만원)
▷금상 4명(각 20만원)
▷은상 6명(각 10만원)
▷동상 11명(각 5만원)

▶단체(팀) ▷대상 1팀(상금 40만원)
▷최우수 9팀(각 15만원)
▷우수 8팀(각 10만원)

▶지도자 및 지도교사상: 1명(상금 20만원)

※단체상은 일반 및 학교·기관부문 구분 응모. 단, 일반부문은 팀당 3명 이내 제한.
학교 등 기관은 학급 또는 동아리 가능. 부문별 출품작 수와 작품 수준에 따라
시상 내역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과 팀부문 이중지원은 안됩니다.

접수처

우편(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일보사 4층)
편집국 NIE 공모전 담당자 앞) 또는 방문 접수

문의

064-750-2235(NIE 담당자)

올해 첫 시행 임업직불금
서귀포시 “29일 신청 마감”

올해 첫 시행중인 임업분야 직불금 신청기한이 이달 말로 예정됨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해당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임업분야 직불금 신청이 오는 29일로 마감한다고 20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농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소규모 임가·면적)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뉜다.
임산물 생산업은 임업인 최대 2196만원, 농업법인 3596만원이며, 육림업은 임업인 1410만원, 농업법인 20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가운데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임가당 120만원이 제공되며 다른 직불금과 이중지급은 안된다.

백금탁기자



만선을 고대하며... 20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바다에서 어민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설치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서귀포 예래생태체험축제 3년만에 개최
오는 30~31일 논짓물 일원... 힐링 프로그램 가득

제20회 예래생태체험축제가 오는 30~31일 양일간 서귀포시 예래동 논짓물에서 개최, 3년만에 제주도민과 관광객을 맞는다.
20일 예래동주민센터에 따르면 예래동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예래생태체험축제위원회(위원장 정성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지친 도민

과 관광객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오는 30일, 행사 첫 날에는 식전행사로 수중보물찾기, 수영대회, 생태마를 탐방, 어르신 민속경기가 이뤄진다. 개막식은 오후 7시에 마련되며 이후 태평소 공연, 불란지 밴드 공연, 각설이 공연 등이 펼쳐진다.

둘째 날에는 레크리에이션을 비롯해 가요제, 테리저스(쥬바댄스)와 함께하는 가면무도회 등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축제 기간엔 상시 프로그램으로 키템 만들기, 탐블러 예코백 만들기, 휴대폰 그림톡 만들기, 비즈팔찌 만들기, 천연염색 체험 등이 운영된다. 제8회 예래생태마를 사진콘테스트에 응모한 작품 94개 가운데 수상작 13점에 대한 전시회도 마련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누구야” 말고 “주무관님”으로...
제주도, 공직사회 변화 유도 과제 발굴·추진

공직사회 내 경직된 관행을 유연하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주문에 따라 제주도가 실천과제를 발굴, 추진한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 지사는 지난 4일 첫 소통과 공감의 날을 통해 “점심시간을 활용한 자기계발 등 일하는 여건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경직된 공직사회를 좀 더 자유롭고 다이나믹한 분위기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냈다.
제주도는 3개 분야, 10개 실천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3개 분야 10대 실천과제는 ▷식사는 자유롭게 ▷근무는 유연하게 ▷관계는 평등

하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점심식약 논치주지 않기’, ‘관리자는 내 부직원보다 외부인사와의 점심식사 등 도민소통의 기회로 우선 실천하기’ 등이 담겼다.
또 ‘자유로운 연가 사용’, ‘논치야근 그만’에 이어 ‘관리자의 수평적 리더십 실천 및 시보씩 돌리기 같은 과도한 의견 금지’, ‘직원 간 친선 및 수평적 관계 형성을 돕는 동호회 활성화’, ‘어린 신규직원에게 ‘주무관’으로 제대로 호칭하고, 친근함을 빌려 하대하는 ‘습관적 반말 사용 금지’ 등도 과제에 포함됐다.
강다혜기자

“가상화폐까지”... 제주시 체납 징수 총력

절반 이상은 고액 체납액
제주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에 나섰다. 변호판 영치에서 나아가 가상화폐까지 압류에 나섰다 때문이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73억2500만원이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의 경우는 101억1200만원으로 전체

58.4%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는 3차례 예고에도 체납을 해결하지 않으면 변호판을 영치하고 있는데, 2020년 7751건, 2021년 6888건, 올해 7월 기준 2073건의 영치 실적을 기록했다.
아울러 제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부터 가상자산까지 압류, 실적이 있는 재산은 공매 절차에 맡길 계획이다. 송은범기자

렌터카 고객 만족 서비스를 위한 자정결의문

그동안 반복적으로 여름 휴가철인 렌터카 성수기가 되면 대여약관에 신고한 요금 범위에서 할인해서 받고 있음에도 비수기에 비해 렌터카 요금이 많이 오름에 따라 관광객들에게는 부당한 요금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 교통사고에 따른 수리비, 휴차 보상금, 사용하고 남은 유류대금 반환, 정비점검, 예약 취소시 환불문제 등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여 렌터카 이미지가 크게 훼손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렌터카 업계 조합원사 89개 업체와 비조합원사 16개 업체, 영업소 9개 업체 등 114개 렌터카업체 대표들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과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렌터카가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정결의 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 첫째** 제주도에 신고한 대여약관을 철저히 준수하고 과다한 요금이 아닌 적정한 요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우리는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향상에 적극 앞장 서겠습니다.
- 셋째** 교통사고 발생시 수리비 및 휴차 보상금 등도 과다 요구하지 않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 넷째** 고객이 사용하고 남은 잔량 유류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째** 자사 직접예약 후 취소시 신속하게 예약금 환불처리하고 수수료 과다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여섯째** 소모품 적시 교환 등 차량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일곱째** 렌터카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앞장서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렌터카 114개 업체 대표 일동